

임대료 부담없고 광주 생활권 공유 '경쟁률 10대1'

화순 '1만원 주택' 성공비결

전국적 관심... 벤치마킹 줄이어
청년 주거부담 경감 사업 '효과'
군 보증금 지원... 사기 우려 없어
인근 초·중·고 등 입지 여건 좋아



화순군이 올해 처음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원 주택' 사업을 실시했다. 사진은 해당 주택단지 전경.

화순군 제공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화순군이 올해 첫 선을 보인 '1만원 주택'의 성공비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년들이 매년 떠나가는 상황에서 주거부담을 경감해주는 정책이 청년 인구유입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 때문이다.

7일 화순군에 따르면 전국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광역단위부터 일선 시·군까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이 '만원 주택' 사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사업 절차, 예산 등을 묻기도 하고 선진지 견학을 오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화순의 파격적 실험은 첫 시작부터 성공을 거두는 분위기다.

최근 화순군은 공급 물량 50가구에 대한 1차 모집을 마감했는데 500명 이상이 신청해 약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군은 하반기에 2차 공급 물량 50가구에 대한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신청자는 화순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지만 '1만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일 전까지 화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 사업으로 정주인구도 점차 늘어나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만원 주택'에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몰리는 이유는 타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입주 조건 때문이다. 임대보증금(가구

별 4600만원)과 리모델링 비용은 지자체가 지원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 치 임대료 12만원과 예치금 88만원만 입금하면 된다. 최소 2년 계약에 2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정착을 위해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임대주택 사업은 지금까지 많았지만 한달에 1만원이라는 파격적 임대료 정책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이번 화

순군의 '1만원 주택'이 갑작 관심을 넘어 실질적인 호응으로 이어진 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거의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전 정책과는 차별성을 보인다.

또 지자체가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 우려에도 자유롭다. 거주자가 계약이 만료되면 화순은 지원했던 임대료를 환수

하기 때문에 거주자와 지자체 모두 큰 부담이 없다.

또 '1만원 주택' 신청자 다수는 화순 인근 지역인 광주시와 인근 시·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청자 중 광주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광주와 생활권을 공유하면서도 화순에 거주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에 따른 선택으로 보인다.

특히 '1만원 주택' 아파트인 부영 6차 아파트는 화순의 신도시인 광덕지구에 위치하고 있다. 인근에는 초·중·고가 주변에 있고 화순군청·화순전남대병원 등과도 가깝다. 입지, 교통, 정주여건 등이 잘 갖춰져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에 나주시의 경우, 화순의 '1만원 주택'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는 올 하반기부터 '1만원 주택'과 비슷한 임대 주택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나주도 광주 인접지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주거가 제공된다면 정주인구의 자연스러운 증가도 기대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1만원 주택 사업은 결과적으로 인구 유입 사업이다"며 "지금은 지자체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국비 등을 사용해 만원 주택 사업을 더욱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전남도, 군·민간공항 통합 공론화 본격 추진

무안 군공항 이전 바로알기 설명회 '소음시설 이전 아닌 거점공항 이전'

전남도가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공론화를 위해 '광주 군공항 이전 바로알기'를 본격화 한다

전남도는 8일 전남개발공사 대강당에서 무안과, 남악 인근 주민 등 도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군공항 이전 바로알기'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목포대학교에서 개최된 전문가 토론회, 전남사회단체연합회에서 주최한 강연회 등 지역사회 주도로 논의가 진행됐고 전남도가 주관한 설명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설명회에선 최용선 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이 '광주 군공항 이전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최용선 전 행정관은 강연에서 "군공항 이전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지금이 특히 중요하다"며 "2029년 부산 가덕도 신공항, 전북 새만금국제공항 개항에 이어 203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개항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속히 무안국제공항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에 비춰보면 앞으로 전남과 광주 간 정치적 합의와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군공항 이전'이라는 접근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거점 공항'을 무안에 개항한다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가 광주시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선 "공항 이전은 특정 기초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의 미래 100년을 이끌 성장동력이자 서남권 거점 공항을 육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훨씬 주도적인 전남도의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안공항 항공특화사업단지(MRO)가 조성되고 향후 저가항공사(LCC) 등 민간항공기뿐만 아니라 군공항 이전에 따른 군 항공정비 물량까지 민간으로 이전되면, 항공산업이 직접화

무안공항 일대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행정관은 또 "군공항 이전 시남악 신도시나 목포 원도심 일대에 소음피해가 발생한다는 일부 우려는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며 "한국소음진동학회 대구공항 소음영향지역 설정연구(2016년)를 분석한 결과, 공항 주변 일부 지역에만 소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강연 후 질의 응답시간에 참석자들은 전남도와 무안군이 대규모 주민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5월 무안사랑모임에 이어 1일 전남사회단체연합회 등 통합을 지지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

는 가운데 이뤄져 지역 주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가 과거와 달리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로 지역 내 분열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도민 통합과 서남권 발전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5월 나주역, 함평, 무안, 목포, 순천 등에서 군공항 이전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16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군 공항 이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황지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전남일보 공동기획

영남 땅 곳곳에는 항일·독립·민주화를 실천한 남도인들의 혼이 남아 있습니다.

영남은 남도인이 영남인과 더불어 항일·독립·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함께 실천한 현장입니다.

한산도·부산포 등 이순신이 이끈 전라좌수영 수군이 참여한 전투지에는 남도 수군들의, 진주성에는 제2차 진주성 전투에 참여한 김천일·최경회·고종후 등 남도 의병들의 항일의 혼이 서려 있습니다.

의열의 도시 밀양에 걸립 된 의열기념관에는 을사오적 이근택을 저격한 장성 출신 기산도가 있고, 마산 앞바다에는 최루탄이 얼굴에 박힌 채로 떠오른 김주열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영남 곳곳에는 항일·독립·민주화를 앞장서 실천한 남도인들의 혼이 서려 있습니다.

